

월이용료 무료로 시작하는 「청구QUICK」, 9월 14일 청구서 수령기능 표준 탑재
~ 발행과 수령, 전자보존까지 올인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보이스 제도 대응을 강력하게 지원 ~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는 경리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DX를 가속화하는 클라우드형 청구서 관리 시스템 「청구QUICK」의 청구서 수령기능을 2023년 9월 14일 표준 탑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청구서의 수령, 발행, 전자보존' 기능을 월이용료 0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인보이스 제도 및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비용이나 운용면에서도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수령기능 표준 탑재



심플한 청구QUICK 요금. 초기비용 · 월이용료 무료로 시작.

초기 비용 무료		기본요금	+	종량 과금	
		월 0 엔		최대 3개월 무료	
유저		무제한		유저	무료(무제한)
청구서 자동인식(AI-OCR)	수령	월 50매까지		1매당	50엔
청구서 발행매수	발행	월 50매까지		1매당	50엔
인터넷뱅킹 명세취득		월 30회까지 <small>※1계좌당 1회</small>		30회당	300엔
		+ 옵션 우편대행 200엔/1통		9월 14일(목) 수령기능 표준 탑재	
<small>※ 요금은 모두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계속이용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결제QUICK」 및 「입금QUICK(청구서 매입)」은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됨 「카드결제QUICK」 및 「입금QUICK(청구서 매입)」은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제공합니다.</small>					

■ 발행, 수령, 전자보존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보이스 제도와 개정 전장법 대응이 가능

인보이스 제도의 개시와 개정 전장법의 유효기간 종료 등이 임박하며 사업자들에게 청구서 관련 업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월이용료 무료로 사용 가능한 「청구QUICK」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며 청구서의 수령기능을 9월 14일(목)부터 새롭게 표준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대응을 위한 3가지 기능인 「청구서 발행, 청구서 수령, 전자보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경리 담당자만으로 디지털 톨에 의한 효율적인 인보이스 제도 · 개정 전장법 대응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보이스 제도 ·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대응을 「청구QUICK」 하나로 !



인보이스 제도 대응 기능

- ☑ 등록번호를 청구서에 자동반영
- ☑ 서울별로 구분한 소비세액과 적용세율 기재가능

- ☑ 수령한 청구서에 기재된 등록번호 진위확인이 즉시 가능
※ AI-OCR로 인식한 등록번호를 국세청 DB와 Web-API로 대조하여 자동확인

개정 전장법 대응 기능

- ☑ 발행한 청구서 사본의 전자보존이 가능

- ☑ 종이 청구서는 스캔하여 전자보존, 전자거래 데이터는 그대로 전자보존 가능
※ 개정 전장법 보존요건 충족여부 자동확인

월
0엔~

「청구QUICK」만으로 발행 · 수령측 각각의 법대응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

■ 「등록번호」의 진위여부와 개정 전장법의 보존요건 충족여부도 자동확인

청구서 수령 시의 인보이스 제도 대응으로 수령한 청구서 상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AI-OCR로 인식하여 국세청의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공표 시스템과 Web-API 연계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개정 전장법에 준거한 전자보존 요건 자동확인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청구QUICK」은 발행 · 수령 업무 모두 인보이스 제도 · 개정 전장법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의 법령 대응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수령 · 전자보존부터 지불 · 전표처리까지 「올인원」으로 효율화



※청구서 수령 기능은 9월 14일 실장 예정입니다.



청구서 수령기능부터 은행송금 데이터 · 지불 · 회계 전표 작성 기능을 실장

■ 다양한 청구서 수령에 대응하며 지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향상을 실현

수령 업무에서는 전자 청구서를 [전용 이메일 주소] 또는 [업로드 전용 URL]로 받으면 청구서를 간편하게 「청구QUICK」에 등록하여 전자법에 대응하는 전자보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수령한 종이 청구서를 스캔·업로드하면 동일하게 등록과 스캔보존이 가능하며, 서류의 수취 방법이나 서류 종류에 따른 전자법 보존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한 청구서는 원클릭으로 AI-OCR이 인식하여 자동으로 항목이 반영되므로 지불요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어 다양한 청구서 수령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불 업무에서는 승인 워크플로우 설정과 승인이 완료된 지불의뢰서의 FB데이터(전국은행협회 규정 포맷) 작성도 가능하므로 지불 관련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관리면에서의 향상도 전망됩니다.

향후 지불의뢰서의 정보를 전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이나 수령한 청구서의 데이터와 출금 데이터를 대조하여 삭제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내는 자동출금확인 기능도 순차적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청구QUICK」 신기능 【청구서 수령기능】 확인 : <https://sqreceiving.sbi-bs.co.jp/>

■ 「청구QUICK」은 SaaS & FinTech 로 중소기업의 경리재무 DX를 지원

「청구QUICK」은 월이용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제도 대응과 업무 효율화를 실현하는 클라우드형 청구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청구서 관리 기능(SaaS)과 더불어 금융기관 API 연계를 통한 자동 명세 취득 기능으로 번거로운 입출금 확인작업을 대폭 효율화하는 「입금확인QUICK」과 발행 청구서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기능인 「카드결제QUICK」, 발행 청구서를 클릭 몇 번으로 자금회할 수 있는 팩토링 기능인 「입금QUICK」이라는 3가지 FinTech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 & FinTech의 노하우와 최신기술을 담은 「청구QUICK」은 경리 업무 효율화와 법·제도 대응에 과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편리한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 청구QUICK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비스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ikyuquick.sbi-bs.co.jp/>

【SaaS & FinTech 로 중소기업에 안심과 부가가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청구QUICK」 개요】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중추 역할인 경리담당자를 위해 백오피스 업무 DX화의 선진적인 대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백오피스부터 경영 과제를 해결하고, 자금이나 인적 리소스 등이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당사 개요

- 회사명 : SBI 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 설립 : 1989년 9월
-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 URL : <https://www.sbi-bs.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